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과 사회정서발달의 매개효과

방해순^{1*}, 이현주²

¹군포시립삼성마을어린이집 원장, ²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The Effects of Parents' Coparenting Scale on Child's Social Competence as Father' Sense :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nd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Hae-Soon Bang^{1*}, Hyun-Ju Lee²

¹Director, Children's Home in Samsung Village, Gunpo City

²Ph.D. program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at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인 가족통합과 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학습준비도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사회정서발달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한국아동패널(PSKC)의 7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7차 년도 조사에 실사 완료를 한 1,620가구 중 공동양육 문항에서 '나는 나와 배우자,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문항에 응답한 1,029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가족통합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 있어 부분매개 하지만 갈등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 있어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정서발달은 부모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인 가족통합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 있어 부분매개 하고, 부모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인 갈등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 있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부모의 공동양육, 사회적 유능감, 가족통합, 의사소통, 사회정서발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communication and social sentiment, which are the sub-factors of the father's late parents' co-parenting, the effects of family integration and conflict on the infant's social skills, and in the process. To this end, he used data from the 7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PSKC) in 2014.. The sample was selected from 1,620 households who completed the survey in the 7th year of the survey, and 1,029 household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 "I, my spouse, and my child" were sele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main analysis, First, it is partially mediated between family integration and social competence, but there is no mediating effect between conflict and social competence. Second, social sentiment development was found to be partially mediated between family integration and social competence, which is a sub-factor of parent co-cultivation, and completely mediated between conflict and social competence.

Key Words : the co-parenting of parents, a sense of social competence, Family Integration, Communication, Development of social sentiment

1. 서론

지금의 우리사회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상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에

도 정상적인 등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자유롭게 등원을 하지 못하고 온종일 집에서 모 또는 부와 지내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부모의 공동양육은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적·심

*Corresponding Author : Hae-Soon Bang(newsae@hanmail.net)

Received February 1,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April 4,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리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다양한 가족의 구조 및 성역할의 변화로 어머니의 양육 역할 비중에서 아버지의 양육 역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1].

영유아가 최초로 마주하는 사회구성원이 바로 가족이다. 영유아는 가족으로부터 사회·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성장하며, 가족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노력을 기울인다. 가족 구성원은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녀의 역할모델이 되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영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개인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행위의 습관과 관습 등에 동조하는 것이며, 사회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이 이를 행하는 자발적인 방향성을 내포한다[2]. Park[3]은 사회적 유능감을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개인이 자신을 사회에 통합시켜 사회의 가치와 규칙을 내면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영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영유아기부터 발달이 진행되며 초기에는 주로 부모 또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4]. 사회적 유능감은 갈등 조절 기술, 사회 정보의 처리과정,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라는 다면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5].

인생의 초기 발달단계인 유아기는 이후 사회성 발달에서 중요한 시기로 밝혀지고 있으며[6], 유아가 직면하는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와 행동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유아가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는데 있어 결정적 기능을 한다[7]. 또한 사회적 유능감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No[8]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영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이 중에 부모의 공동양육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핵가족 사회에서 여성의 자기 계발과 사회 참여의 증가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부모로서의 공동 책임을 부과하며 협조적인 관계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며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의 다양성과 적극성이 강조되고 있다[9].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사회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역할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구조와 성역할의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 역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1]. 사회적 변화는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10].

1988년도에 생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근로 여성으로 규정되어 있던 적용 대상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근로 여성 또는 배우자인 근로자로 확대해 최근에는 영유아 아버지를 둔 근로자를 포함시키면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10]. 이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부공동양육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며, 부부공동양육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배우자와의 협력과 조화를 의미하고 있다[11-13].

Ryu[10]는 아버지의 공동양육 참여를 통해 유아가 타인과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유능감을 강조하였으며, 아버지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로 육아에 참여하고 양육과 관련된 과업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부모는 양육을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부모-자녀 관계를 맺으므로 부모의 정서 및 사회적 특성은 양육을 매개로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모의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며 애정적일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친사회성이 높게 나타났으며[14-18], 놀이방해와 같은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은 낮게 나타났다[19].

유아기는 주변 환경에 대해 탐색활동이 높아지고, 또래 관계에서 규칙과 사회적 규범의 이해 수준이 높아진다[20]. 또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해짐으로서 사회성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며, 이와 더불어 언어 및 인지 능력 발달에도 결정적 시기가 나타난다[20].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유아들은 가족, 또래,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며 사회성 발달을 포함하여 인지 발달이나 정서발달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보고된다[21-23]. 사회성 발달을 살펴보는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사회적 유능감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행동을 사용하는 능력을 뜻한다[24,25].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 측면 중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33]. 부모는 자녀가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주양육자이며, 자녀발달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34].

아버지가 온정적이고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나며[35,36],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수준이 낮아진다[37].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둘 다 온정적인 집단의 유아들은 다른 집단의 유아들과 비교하여 사회적 능력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31],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조합은 걸음마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통합 또는 갈등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가족통합과 갈등에서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에 어떤 매개효과가 있는가? 둘째, 사회정서발달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가족통합과 갈등에서 사회적 유능감에 어떤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모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인 가족통합과 갈등을 선정하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과 사회정서발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 연구는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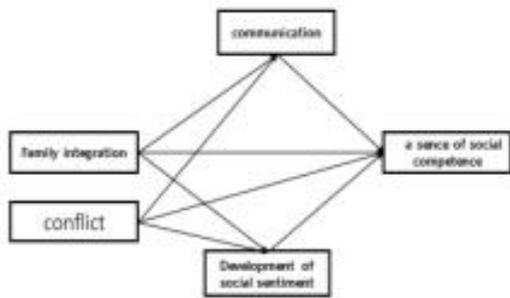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 한국아동패널(PSKC)의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한 아동이 태어나서 일정한 연령이 될 때까지의 장기간 동안 양육 및 발달의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47].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는 연령 변화에 따른 아동의 발달 및 생활 특성을 파악하고, 각 시기에 발생하는 양육 실태 및 요구를 확인하며, 아동의 성장에 따른 보육·교육 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관찰하고,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 간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본은 7차년도 조사에 실사 완료를 한 1,620가구 중 공동양육 문항에서 '나는 나와 배우자, 아이가 함께 있을 때' 문항에 응답한 1,029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독립변수: 부모의 공동양육의 하위요인 가족통합, 갈등
 부모의 공동양육 척도는 Mchale[48]의 논문에서 공개된 내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 후 실사에 반영한 문항이다. 부모의 공동양육은 가족통합, 훈육, 비난, 갈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될 하위요인은 가족통합과 갈등이며, '배우자와 아동이 함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족통합의 문항은 '아이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안아주기, 만지기, 보뽀하기)을 한다.', '배우자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안아주기, 만지기, 보뽀하기)을 한다.', '배우자에게 아이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아이에게 배우자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배우자와 아이가 다정하고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으로 도와 준다.'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갈등의 문항은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빈정거리며 말한다.', '배우자와 언쟁(말싸움)을 한다.' 등 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보통이다' 4점, '매우 그렇다' 7점 순서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통합과 갈등에 대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 내적 일관성인 가족통합의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841, 갈등은 .764로 나타났다.

2.2.2 매개변수: 학습 준비도의 하위요인 의사소통, 사회정서발달

학습 준비도의 척도는 Murphey(2002)의 논문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 후 사용한 문항이다. 학습 준비도는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될

하위요인은 의사소통과 사회정서발달이며, 의사소통은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간단한 지시, 요청, 정보를 이해한다.', '대화에 참여한다(완전한 문장으로, 자신이 말하는 순서에)' 등 총 3문항, 사회정서 발달은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 해결 기술을 사용한다.', '양육자와 쉽게 떨어진다.', '감정의 변화를 적절하게 표현한다.', '하루 일과 변화에 잘 적응한다.', '교사 등 어른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문항 중 타당도가 낮은 문항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를 제거한 후 변수로 구성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순서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잘되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 내적 일관성인 의사소통의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797, 사회정서발달은 .729로 나타났다.

2.2.3 종속변수: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의 척도는 Gresham[44]의 도구를 Seo[45]가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토·수정하여, 예비조사 후 사용한 문항이다. 사회적 유능감은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장성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동료들 칭찬하기, 놀이를 할 때 다른 아이에게도 같이 하자는 말 하기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협력성은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 수업 중에 학업을 잘 수행하기, 다른 아이들과 집단 활동에 잘 참여하기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자기통제는 동료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기,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기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책임성은 놀이를 할 때 규칙과 순서를 지키기, 부모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기와 같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장성에 대한 2문항은 타당도가 0.4 이하로 제거하여 구성하였으며, 변수 구성의 모든 문항은 Likert 3점 척도이며 '전혀 아니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매우 자주 그렇다' 3점 순서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 내적 일관성인 사회적 유능감의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911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연구 분석방법으로 SPSS WIN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으로 변수들의 평균값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족통합과 갈등, 의사소통,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셋째, 가족통합, 갈등, 의사소통,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46]의 매개효과분석 3단계 분석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방법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 487명(50.9%), '여아' 470명(49.1%), 모의 취업 및 학업 상태는 '취업/학업'은 432명(45.7%), '미취업/미학업'은 514명(54.3%), 가구 소득은 '500만 원 미만' 576명(60.2%), '500만 원 이상' 381명(39.8%)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957)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Child's gender	Male Child	487	50.9
	Female Child	470	49.1
Mom's Employment and Academic Status	Employment/Study	432	45.7
	Unemployed/Aesthetics	514	54.3
Household Income	Less than 5 Million Won	576	60.2
	More than 5 Million Won	381	39.8

3.2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가족통합, 갈등, 의사소통,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가족통합의 평균값은 5.132(sd=1.034), 갈등은 2.909(sd=1.309), 의사소통은 3.621(sd=.461), 사회정서발달은 3.443(sd=.424), 사회적 유능감은 2.330(sd=.3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가 절대값 3을 넘지 않으며, 첨도 또한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곡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echnical statistics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Family Integration	1.00	7.00	5.132	1.034	-.256	.047
Conflict	1.00	7.00	2.909	1.309	.398	-.277
Communication	1.00	4.00	3.621	.461	-.899	.020
Social Emotion Development	2.20	4.00	3.443	.424	-.452	-.646
Social Competence	1.25	3.00	2.330	.303	-.160	-.507

3.3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모의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인 가족통합은 의사소통($r=.149, p<.01$), 사회정서발달($r=.155, p<.01$), 사회적 유능감($r=.204,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갈등($r=-.335, p<.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Family Integration	Conflict	Communication	Social Emotion Development	Social Competence
Family Integration	1				
Conflict	-.335**	1			
Communication	.149**	-.080*	1		
Social Emotion Development	.155**	-.150**	.535**	1	
Social Competence	.204**	-.167**	.580**	.584**	1

* $p<.05$, ** $p<.01$

부모의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인 갈등은 의사소통($r=-.080, p<.05$), 사회정서발달($r=-.150, p<.01$), 사회적 유능감($r=-.167, p<.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습 준비도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은 사회정서발달($r=.535, p<.01$), 사회적 유능감($r=.580,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습 준비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정서발달은 사회적 유능감($r=.584,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4 매개모형 검증

3.4.1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이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46]의 3단계 회귀분석 과정을 활용하였다. 각 단계의 투입된 변수는 1단계는 독립변수인 가족통합, 갈등과 매개변수인 의사소통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2단계는 독립변수인 가족통합, 갈등과 종속변수인 사회적 유능감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통합, 갈등과 매개변수인 의사소통을 투입하여 사회적 유능감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Table 4>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통합($\beta=.132, t=3.849, p<.001$)은 매개변수인 의사소통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부모의 공동양육이 가족통합이 될수록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인 갈등($\beta=-.030, t=-.874, p>.05$)은 의사소통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모형의 영향력에 대해 3.5% 정도 설명하고 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통합($\beta=.158, t=4.714, p<.001$)은 종속변수인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갈등($\beta=-.024, t=-3.117, p<.01$)은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부모의 공동양육이 가족통합이 될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지는 것이며, 갈등의 정도가 심할 경우 사회적 유능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단계 모형의 영향력에 대해 7.3% 정도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인 의사소통을 투입한 결과 가족통합($\beta=.085, t=3.059, p<.01$)과 의사소통($\beta=.511, t=20.819, p<.001$)은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갈등($\beta=-.020, t=-3.172, p<.01$)은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3단계 모형의 영향력에 대해 36.6% 정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의사소통은 독립변수인 가족통합과 종속변수인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s

Variable	Dependent variable: Communication		Dependent variable: Social Competence		Dependent variable: Social Competence	
	B(β)	t	B(β)	t	B(β)	t
Child's Gender	-.077 (-.083)	-2.600**	-.065 (-.107)	-3.397**	-.037 (-.061)	-2.331*
Mom's Employment and Academic Status	-.014 (-.015)	-.463	-.016 (-.026)	-.792	-.011 (-.017)	-.642
Household Income	-.065 (-.069)	-2.044*	-.062 (-.100)	-3.035**	-.039 (-.062)	-2.274*
Family Integration	.059 (.132)	3.849***	.047 (.158)	4.714***	.025 (.085)	3.059**
Conflict	-.010 (-.030)	-.874	-.024 (-.104)	-3.117**	-.020 (-.088)	-3.172**
Communication					.362 (.511)	20.819***
R	.187		.271		.605	
R2	.035		.073		.366	
F	6.801***		14.868***		90.325***	
Durbin-Watson	1.952		1.936		2.036	

*p<.05, **p<.01, ***p<.001

3.4.2 사회정서발달의 매개효과 검증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이 사회정서발달을 매개하여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46]의 3단계 회귀분석 과정을 활용하였다. 각 단계의 투입된 변수는 1단계는 독립변수인 가족통합, 갈등과 매개변수인 사회정서발달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2단계는 독립변수인 가족통합, 갈등과 종속변수인 사회적 유능감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족통합, 갈등과 매개변수인 사회정서발달을 투입하여 사회적 유능감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Table 5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통합(β=.109, t=3.215, p<.01)은 매개변수인 사회정서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갈등(β=-.103, t=-3.057, p<.001)은 매개변수인 사회정서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부모의 공동양육은 가족통합이 될수록 사회정서발달이 잘 되며, 갈등의 정도가 심할수록 부정적인 사회정서발달이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단계 모형의 영향력에 대해 4.7% 정도 설명하고 있다.

Table 5.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s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ocial Emotion Development		Dependent variable: Social Competence		Dependent variable: Social Competence	
	B(β)	t	B(β)	t	B(β)	t
Child's Gender	-.043 (-.051)	-1.586	-.065 (-.107)	-3.397**	-.048 (-.079)	-3.025*
Mom's Employment and Academic Status	.013 (.015)	.467	-.016 (-.026)	-.792	-.021 (-.034)	-1.275
Household Income	-.084 (-.097)	-2.901**	-.062 (-.100)	-3.035**	-.029 (-.046)	-1.688
Family Integration	.045 (.109)	3.215**	.047 (.158)	4.714***	.029 (.097)	3.493***
Conflict	-.033 (-.103)	-3.057**	-.024 (-.104)	-3.117**	-.011 (-.047)	-1.679
Social Emotion Development					.399 (.555)	20.877***
R	.218		.271		.606	
R2	.047		.073		.367	
F	9.370***		14.868***		90.760***	
Durbin-Watson	2.000		1.936		1.931	

*p<.05, **p<.01,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통합(β=.158, t=4.714, p<.001)은 종속변수인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갈등(β=-.024, t=-3.117, p<.01)은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부모의 공동양육은 가족통합이 될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지는 것이며, 갈등의 정도가 심할 경우 사회적 유능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단계 모형의 영향력에 대해 7.3% 정도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인 사회정서발달을 투입한 결과 가족통합(β=.097, t=3.493, p<.001)과 사회정서발달(β=.555, t=20.877, p<.001)은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갈등(β=-.047, t=-1.679, p>.05)은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모형의 영향력에 대해 36.7% 정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사회정서발달은 부모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인 가족통합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 있어 부분매개하고, 갈등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 있어 완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3 의사소통과 사회정서발달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의사소통과 사회정서발달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가족통합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Sobel test statistic=3.868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족통합과 갈등이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정서발달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Sobel test statistic=3.177, -2.970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1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Sobel test statistic	p
Family Integration →Communication→Social Competence	3.868	.000
Family Integration→Social Emotion Development→Social Competence	3.177	.001
Conflict→Social Emotion Development →Social Competence	-2.970	.001

*p<.05, **p<.01, ***p<.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의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과 사회정서발달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가족통합과 갈등에서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공동양육에 참여하였을 경우 유아가 사회와 타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는데 더 사회적 유능감이 강조되는 Ryu[10]의 연구와 일치하며,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향상되는 연구결과 Kwon[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국내 유아 대상 연구에서도 부모가 온정적 집단의 유아들이 사회적 유능감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이처럼 부모의 공동양육은 부모와 아동 간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모와 아동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양육은 엄마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할 때 자녀에게 사회적 유능감을 길러주며, 자녀와의 소통에도 시너지 효과를 분출한다. 따라서 부모의 질 높은 공동양육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함께 가족끼리 세우는 가족계획 만들어 보기, 3대가 서로 역할 바꾸어 보기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버지와 함

께하는 체험활동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 함께하기 등을 권유해 본다.

둘째,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에서 사회정서발달이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oo[39]와 Kim[40]의 연구에서 부모의 정서지지가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은 정서조절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41-43],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은 자녀의 또래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며, 책임성 및 협력성 등을 길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가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 자녀는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자기통제력도 길러져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에서는 아동이 또래들과 관계하는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 뮤지컬로 시연하고 만화로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모양육의 방향성과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관련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기, 청소년기 등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부모의 공동양육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력을 연구하는데 있어 다소 제한적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및 사회정서발달 변인을 포함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부모의 공동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버지의 공동양육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아버지가 공동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관한 지속적인 정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구조와 성역할의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 역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에서 부모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E. S. Park. (2015). The Influence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Infants' Self-Regulation Ability and Peer Competence. Department of Educational Graduate School Duksung Women's University.
- [2] E. J. Lee. (2005). *A Study on Related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partment of Educational Graduate Sungkyunkwan University.
- [3] S. R. Park, B. R. No, H. J. Park & S. H. Lee. (2017).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Parent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rough Passionate Parenting Attitude and Family Flexibility: Analysis of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Applying Self-Counterparty Interdependence Model, (APIM). *The Korea Journal of Parenting Policy Research*, 11(1), 51-79.
- [4] E. J. Lee. (2018). *The Influence of Father's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Efficacy on Infants' Social Competence*. Department of Educational Graduat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5] Webster-Stratton, C. & Lindsay, D. W. (1999). Social Competence and Conduct Problems in Young Children: Issues in Assess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8(1), 25-43. DOI : 10.1207/s15374424jccp2801_3
- [6] Fantuzzo, J. W., Bulotsky-Shearer, R., Fusco, R. A. & C. McWayne. (2005). An Investigation of Preschol Classroom behavioral Adjustment Problems and Social-Emotional School Readiness Competenci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0(3), 259-275.
- [7] H. K. Kwon. (2017). A Study on Parenting Participation and Parenting Efficacy of Father and Mother: Focusing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Korea Journal of Children and Rights*, 21(1), 38-104. DOI : 10.1016/j.ecresq.2005.07.001
- [8] Y. S. No. (2015). *The Influence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Young Children's Socia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in Parenting*. Department of Educational Graduate Gyeonggi University.
- [9] E. A. Lee.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Temperament, the Father's Parenting Attitude and the Child's Social Development*. Department of Educational Graduate Kyunghee University.
- [10] J. Y. Ryu. (201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fants' Soci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Cluster Types of Fathers' Participating in Joint Parenting. *The Korea Journal of the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Association*, 26(4), 115-138.
- [11] I. S. Park & E. Y. Nam. (2012).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arenting, Participation in Parenting and Infant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evelopment*, 28(4), 135-153.
- [12] S. K. Jang. (2012).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Joint Renting and Participation in Parenting and Infant's Playability*. Department of Educational Graduat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13] McHale, J., Rao, N. & Krasnow, A. (2000). Constructing Family Climates: Chinese Mothers' Reports of their Co-Parenting behaviour Preschoolers'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1), 111-118. DOI : 10.1080%2F016502500383548.
- [14] H. S. Min & Y. K. Moon. (2013).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Science*, 22(1), 43-56.
- [15] Y. M. Chae. (2010). Infant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nd Social Ability According to Parenting Attitude. *The Korea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21, 10-13.
- [16] Rispoli, K. M., McGoey, K. E., Koziol, N. A. & Schreiber, J. B. (2013). The Relation of Parenting, Child Temperament, and Attachment Security in Early Childhood to Social Competence at School Entr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5), 643-658. DOI : 10.1016/j.jsp.2013.05.007
- [17] L. C. Reynolds & J. Shister. (1994). *Job Horizons: A Study of Job Satisfaction and Labor Mobility*. New York: Harper and Brother.
- [18]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DOI : 10.1002/icd.385

- [19] S. H. Kim. (2014).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Mother's Depressi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s Negative Peer Play Behavior. *Child Education Journal*, 18(5), 317-338.
- [20] Y. J. Hong, S. J. Kang, K. E. Lee & N. Y. Choi. (2017). Longitudinal Effects of Young Children's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on Social Competence: Mediating effect of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The Korea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Research*, 24(4), 161-178.
- [21] Arnold, D. H., Kupersmidt, J. B., Voegler-Lee, M. E. & N. Marshall.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Preschool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and their Emergent Academic Skills. *Early Child Research Quarterly*, 27(3), 376-386.
DOI : 10.1016/j.ecresq.2011.12.009
- [22] McClelland, M. M. & F. J. Morrison. (2003). The Emergence of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 Research Quarterly*, 18(2), 206-224.
DOI : 10.1016/S0885-2006(03)00026-7
- [23] Mendez, J., McDermott, P. & J. Fantuzzo. (2002). Identifying and Promoting Social Competence with African America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Considerations. *Psychology in the School*, 39(1), 11-123.
DOI : 10.1002/pits.10039
- [24] Denham, S. (2006). Social-Emotional Competence as Support for School Readiness: What is it and how do We Assess i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57-89.
DOI : 10.1207/s15566935eed1701_4
- [25] Gresham, F. M. & S. N. Elliott. (1984).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of Children's Social Skills: A Review of Methods and Issues. *School Psychology Review*, 13, 292-301.
- [26] Y. H. Choi & H. J. Moon. (2018). The Influence of Parents' Parenting Behavior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8(7), 21-28.
- [27] J. W. Hong & Y. H. Choi. (201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Infants' Social Development According to Mother's Parenting Attitud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2(2), 81-94.
- [28] K. Y. Ryu. (2012).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s Social Competence. *The Korea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3), 231-240.
- [29] S. S. Im, J. M. Lee & Y. H. Kim. (2010). The Influence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Infant's Emotional Regulation on Sociality. *The Korea Journal of Korean Family Welfare*, 15(2), 143-157.
- [30] I. S. Lee & S. H. Lee. (2009).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Infant's Social Development. *The Korea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8(3), 17-19.
- [31] B. W. Joe. (2009). Comparison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 Type, Matching Yype and Social Ability of Different Infants on Matching. *The Korea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Administration Research*, 13(4), 93-99.
- [32] Hosokawa, R. & T. Katsura. (2017). A Longitudinal Study of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Child Adjustment from Preschool until early Elementary School: The Role of Social Competence.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tal Health*, 11(1), 1-28.
DOI : 10.1186%2Fs13034-017-0206-z
- [33] Rispoli, K. M., McGoey, K. E., Koziol, N. A. & J. B. Schreiber. (2013). The Relation of Parenting, Child Temperament, and Attachment Security in early Childhood to Social Competence at School entr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5), 643-658. DOI : 10.1016/j.jsp.2013.05.007
- [34] K. H. Ok. (2019). A Study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ccording to Parents' Parenting Behavior Types. *The Korea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0-13.
- [35] S. Kang, K. Y. Kyun & K. H. Ryu. (2013).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of Mother and Father Influencing Children's Social Abil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Child Care Association*, 13(4), 329-356.
- [36] J. H. Woo, M. S. Lee & C. A. Jeon. (2003).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Attitude and Infant's Social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2), 91-101.
- [37] B. R. No, S. M. En, K. L. Lee & E. Y. Kim. (2016).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f Parents and Negative Peer Interaction of Infancy Childre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Research*, 23(4), 156-179.
- [38] Rinaldi, C. M. & N. Howe. (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Quarterly*, 27(2), 26-273. DOI : 10.1016/j.ecresq.2011.08.001

- [39] Y. J. Woo. (2011). *The Effects of Parental Support on Adolescents'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Department of Educational Graduate Myeongji University.
- [40] J. H. Kim.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Mothers Perceived by Low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partment of Educational Graduate Kyungin University.
- [41] H. J. Hwang.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Elementary School Education Journal*, 13(1), 67-84.
- [42] Gottman, J. M. & Mettatal, G. (1986). Speculations about Social and Affective Development: Friendship and Acquaintanceship through Adolescence. In J. M. Gottman & J. G. Parker(Eds.). *Conversations of Friends: Speculations on Affective Developem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3] Putallaz, M. & Shepard, B. H. (1992). Conflict Management and Social Competence. In C. Shantz & W. 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4] Gresham, F. M. & Ellio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secondary*.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1-223.
- [45] M. O. Seo. (2004). A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K-SSRS: Teacher and Parent Forms).
- [46] Baron, R. M. & Keny D. A. (1986). The Modertaor-Mekiator Variable Distnction iSocial Psycholgical Resarch: Conceptual, Straegic and Staist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 51(6), 173-182.
- [47] M. R. Jang, Y. S. Reo & J. H. Shin. (2006). A Study on the Integrated Service of Education and Welfare for Young-Children. *CR2006-11*.
- [48] Mchale, J. P.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2), 183-201.

방 해 순(Hae-Soon Bang)

[정회원]



- 2014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
- 2017년 8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박사)
- 1999년 9월 ~ 2013년 1월 : 새샘 어린이집 원장

- 2014년 7월 ~ 현재 : 군포시립삼성마을어린이집 원장
- 관심분야 : 가족, 영유아, 여성
- E-Mail : newsaem@hanmail.net

이 현 주(Hyun-Ju Lee)

[정회원]



- 2020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
- 2020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박사)
- 관심분야 : 아동, 보육
- E-Mail : hjlee1969@hanmail.net